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1

JANUARY 2016
vol.13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하람'

'하람'은 '꿈'이라는 순 우리말이다. 2016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맞이로 너도 나도 소망과 희망을 마음속에 새겨본다.
어렸을 적 부모님께 새해 덕담을 들으며 한해의 꿈을 적어본 기억이 난다. 언제나 꿈을 꾸고 실천해 가는 '행복의 꿈'을 갖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꿈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고운의 길 중에
새터 이상현

새해를 맞이하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What is your Special way of Starting a New Year?

소망을 기원하는 우리들의 방법

'걱해빠야/보름썰매/왜났는데/일년치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떠오르는 시인(?) 이환천은 '다이어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웃자고 쓴 시이지만 공감하는 사람들도 꽤 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아마도 많은 이들이 2016년 다이어리를 사서 맨 앞장에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새해 계획을 적는 '의식'을 하지 않을까. 비단 '다이어리 의식'뿐이 아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새해가 시작되면 간절곳은 새 소망을 기원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굳이 간절곳이 아니라도 새해맞이 해돋이를 위해 첫날 동네 뒷산에 올라 뜨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한다.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일은 새해 소망에 희망을 불어넣는 의식이며, 실천의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는 약속인 듯하다.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소원 명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공통된 소망은 아마도 각자가 기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 아닐까.



묵은 먼지 털고가기

오지여행가이자 국제난민 구호 활동가인 '바람의 딸' 한비야는 그의 저서 '1그램의 용기'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만의 방법을 이야기한다. 살짝 엿보면 이렇다. 「송년회 첫 번째 순서는 집안 정리다. 준비물은 커다란 박스, 행동 지침은 미련 없이 신나게 버릴 것. 다음 순서는 컴퓨터 정리. 여러 개의 파일을 폴더 안에 말끔히 정리해서 내 문서와 외장하드에 각각 저장해놓을 예정이다. 그 다음은 그해에 쓴 일기 모두 읽기다. 두세 권쯤 되는 일기장을 읽고 있으면 그해의 크고 작은 일은 물론 기쁨과 즐거움, 괴로움과 억울함, 뿌듯함과 아쉬움이 마치 어제 일인 양 생생하다. 내 송년 의식의 다음 순서는 감사하기와 용서 구하기다. 고마웠던 분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라도 고맙다는 인사하기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용서 구하기, 그리고 용서할 사람들은 통 크게 용서하고 털고가기, 사실 이게 송년회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인데 깔끔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다.」 집안을 정리하고 묵은 감정을 털고 가는 새해 의식이 참으로 지혜로워 보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 2016년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바탕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으리라.

시작과 끝을 '감사함'으로 장식한다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묵은 해의 마지막 날 가족들과 모여 한 해 동안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웠던 일 다섯 가지를 적고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이다. 특별히 상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종이에 친필로 마음을 실어 가족들에게 상을 준다면 그 어느 칭찬보다 값질 것이다. 채장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던 랜디 포시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언젠가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현재 병에 걸려 있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다고 볼 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1년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감사한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매일 매일 감사한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는 것도 새해를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삶의 지침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으로 지혜로운 삶의 지침을 마련해 놓는 것은 어떨까. 법륜 스님은 행복을 가져오는 새해 다짐 10가지를 일러주었다. 수첩에 적거나 책상 앞에 써 붙여 놓으면 한 해 동안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1. 무엇이든지 방긋 웃으며 '예'하는 사람이 된다.
2.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3.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4.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5. 의지하기보다는 의지처가 되는 사람이 된다.
6.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된다.
7.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8. 좋은 일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된다.
9. 실패가 곧 성공의 길이 되는 사람이 된다.
10.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하면 뉘우치는 사람이 된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1월호 vol.13
MONTHLY MAGAZINE. JANUARY 2016



08 행복을 주는 사람 |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100세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 97세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한 시절의 젊은이들은 '고독이라는 병', '영원과 사랑의 대화'같은 그의 수필을 밤새 읽으며 인생을 논하며 삶을 이야기 했더라.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차례 강연을 하고, 하루에 30~40장의 원고를 집필한다.



I4 행복메신저 | 양진경 KEB하나은행 둔산지점 과장

자산관리의 명가(名家), KEB하나은행은 전 직원의 PB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복파트너'를 도입했다. 행복파트너는 3,000만원 이상의 소액 자산가들이 미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제도이다. KEB하나은행 대전둔산지점의 행복파트너, 양진경 과장을 만났다.



24 Do! Dream | 시간도둑 잡는 습관 베스트 5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는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하고 어떤 이는 하루가 지루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24시간을 12시간처럼 쓰기도 한다. 새해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30 연금 포커스 I | 새해 달라지는 연금 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새해에도 경제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금 수익률은 날로 하락하고 있고,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 연금 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새해를 맞이하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INFO GRAPHY

- I 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내 연금 잘 굴러지고 있나?

행복미래설계

- I 4 행복메신저
당신의 삶에 행복자산을 서비스 합니다.
- I 6 H씨의 행복설계
지출액 조정, 주택연금 활용으로 안정.적 노후 생활
- 20 지식 플러자- 법률
효도(孝道)를 권하는 사회
- 22 지식 플러자- 상품소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24 Do! Dream
시간도둑 잡는 습관 베스트 5
- 26 Anti aging
동네공원 운동기구 200% 활용법
- 28 Alone, together
손쉬운 그림쇼핑 ‘아트숍’

연금이슈포커스

- 30 연금 포커스 I
새해 달라지는 연금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 34 연금 포커스 II
국내 부자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경제 TREND

- 38 경제 이슈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있는 한국경제
- 42 부동산 이슈
2016년 주택시장의 전망과 관전 포인트

GLOBAL

- 46 지구인 이야기
일본의 시니어는 ‘창업 중’

FUTURE

- 48 은퇴, 버킷리스트
나도 파워블로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1월호 vol.13 (통권 13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6년 01월 8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상환 연구위원,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유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100세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 97세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한 시절의 젊은 이들은 ‘고독이라는 병’, ‘영원과 사랑의 대화’같은 그의 수필을 밤새 읽으며 인생을 논하며 삶을 이야기 했더라.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차례 강연을 하고, 하루에 30~40장의 원고를 집필한다. 인터뷰가 있던 날에도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준비하는 그런 분이였다. 인터뷰 내내 ‘97세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건강함, 위트 있는 농담, 눈빛, 흐트러짐 없는 자세까지 그 어디에도 97세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시대 참 스승에 대한 존경심뿐.

지금도 강연, 책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시죠.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느새 90이 넘는 나이가 됐더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도 하고 조심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꾸준히 공부하고, 일을 하다보니 건강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건 70, 80대도 가능해요. 공부하고 일하니 80대 중반까지 정신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군요. 가장 좋았던 때는 75세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활발한 정신력을 갖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하며 성장하려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일에서도 손을 떼고 살면서 정신적 성장과 건강을 바란다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입니다. 나이 들면 강한 정신력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싶은 열정,
의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만 건강을 지키며 일을 하려는 데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 없이 살아본 경험도 있고, 병들어 있는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했어요. 그저 누군가가 “너는 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쓸 때도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얘기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과 “전하고 싶은 내용을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살아보니 나를 위해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게 남는 거지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남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에 열정이 생기고, 건강을 유지하며 일하고 싶어지죠.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좀더 공부할 것을, 좀더 사랑할 것을, 좀더 용서할 것을... 얼마 전 제자 9명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중 80살 넘는 제자가 더 늦기 전에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으로 절이라도 하겠다며 식당에서 절을 하더군요. 그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스승으로서 이들을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껴안지 못했던 것이 참 후회로 남는구나.

“자기 계발과 자아 성장의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에 살고 싶다는 것은 노력 없는 대가를 얻고 싶다는 모순을 만들어가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평범한 것 같아도 진실에 머물며,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정의(正義)의 길을 이탈하지 않으며, 크게 떠들지 않아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김형석 교수의「사랑을 알아야 인생을 배운다」중에서

요즘 ‘행복’이 화두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저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된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내 소유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일의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합니다. 또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며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친구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 생겨납니다. 폭넓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풍부한 삶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함께 일했던 동료나 부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봤을 때 “그 사람 참 인간적이었어”, “내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줬어”라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죠.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괴테의 말처럼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품지 못하는 소위 제대로 된 인격과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무가치한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불행을 키우는 일입니다.

“

일의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합니다.
또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며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드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통 “착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착하면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신 내 인격 자체가 진정으로 착하고 겸손해야 해요. 사람은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긴다는 용기와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악은 곧 감춰버리지만 숨겨진 작은 선은 영원히 남는다는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향하는 길은 고립된 이기심을 버리고 협력과 봉사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악을 탄생시키는 첫 걸음은 “나는 나만을 위하여 살면 된다”는 고립된 이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격을 성장시키는 공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생활에서도 더 승진하고 싶고,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다면 내 인격과 지식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평소 공부할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본인의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해야 합니다. 책을 가까이 해야 해요. 특히 고전을 읽으세요. 고전은 인격을 성장시킵니다. 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전문 실력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이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고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매 순간 삶의 성실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성실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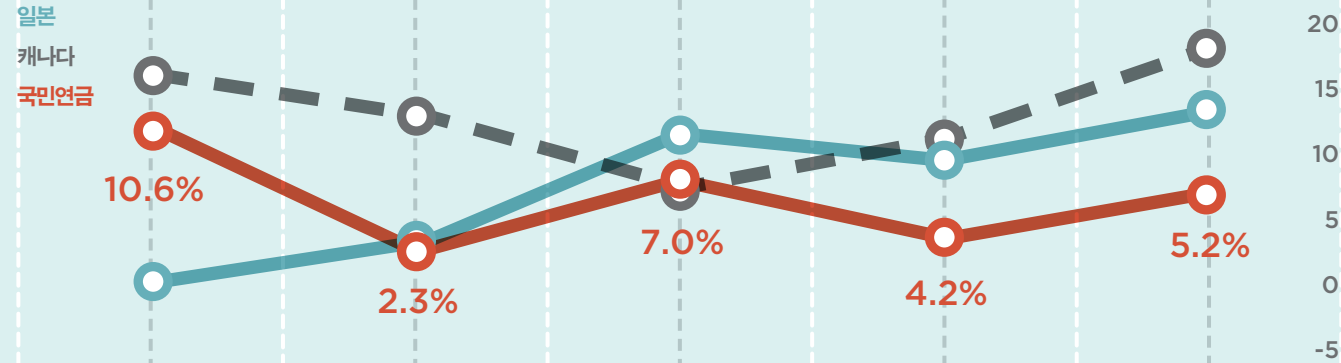
내 연금 잘 굴러지고 있나?



수익률은 위험수준, 세제혜택(사적연금)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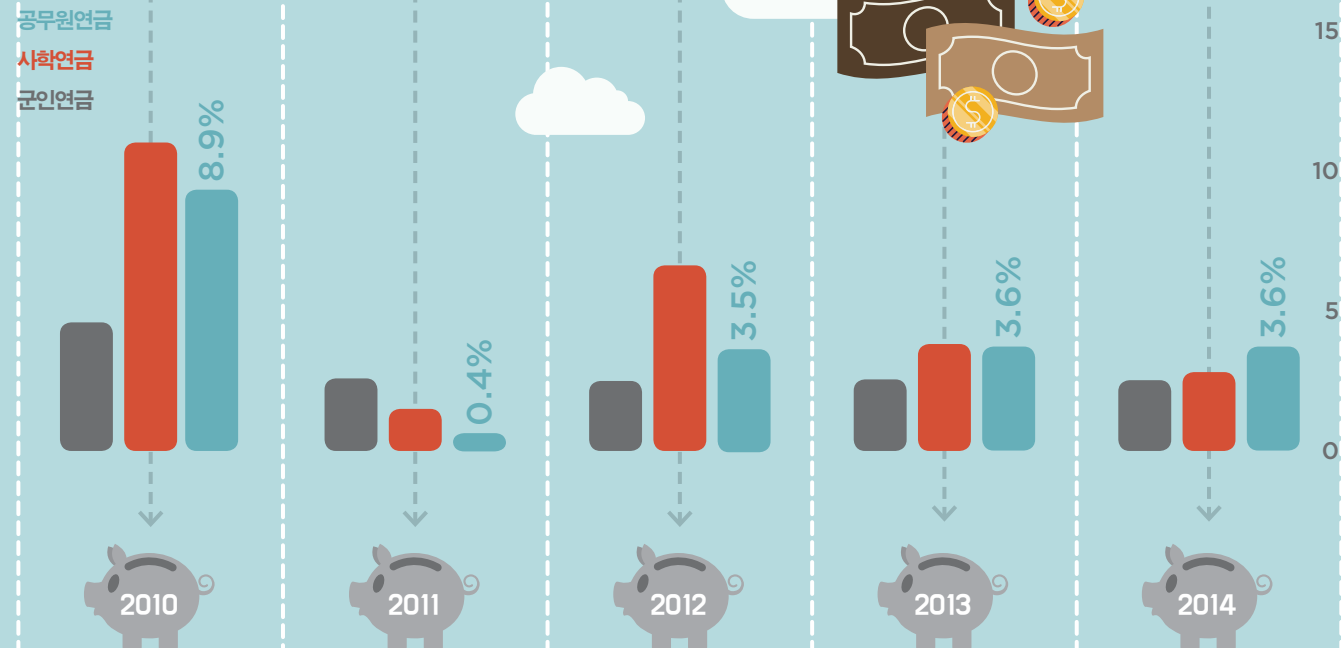
01.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자료 : 국민연금, CPPIB, GPIF



02. 직역연금 수익률

자료 : 각 연금공단 및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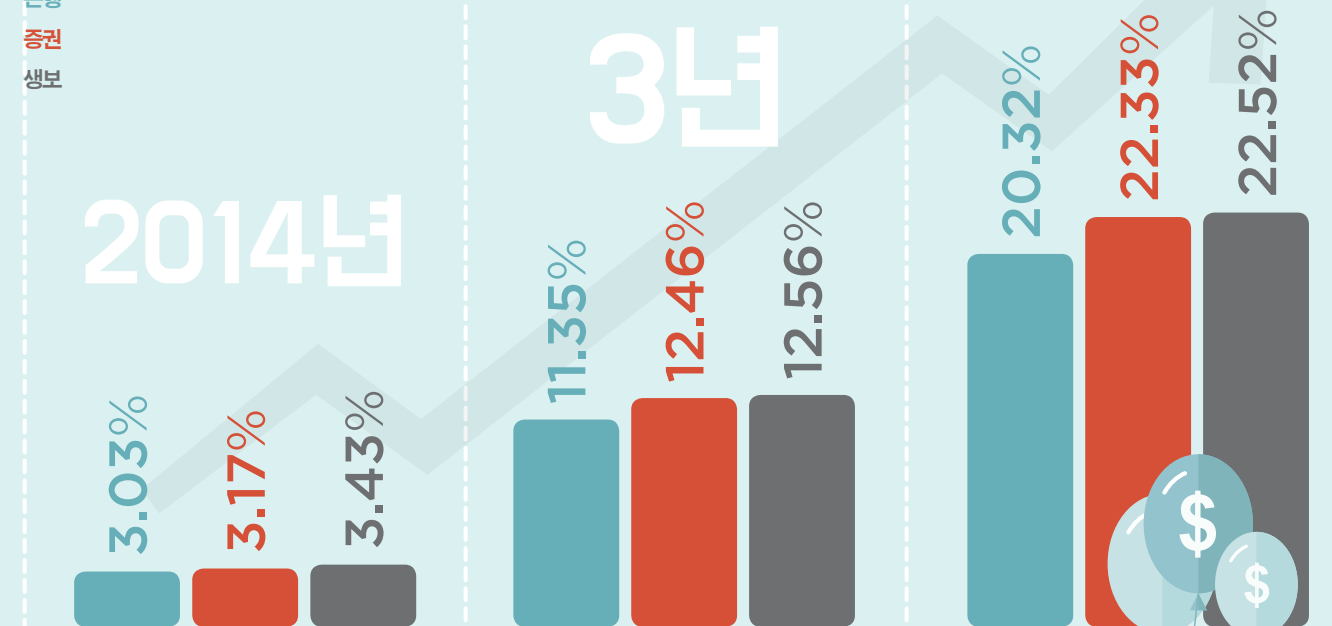


03. 퇴직연금 수익률

주 : 적립금 상위 4대 금융사의 DC형 기준 누적수익률

자료 : 각 협회 공시내용

은행
증권
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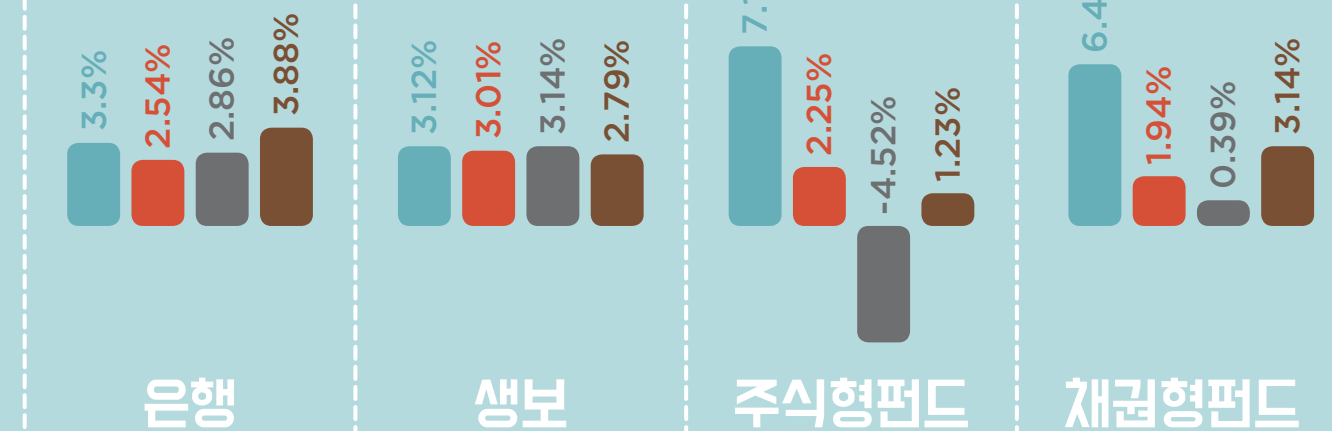
04. 개인연금저축 수익률

주 : 2012년 이전 판매기준

자료 : 각 협회 공시내용

2012
2013
2014

판매이후 연평균



당신의 삶에 행복자산을 서비스합니다

첫번째 행복파트너.

양진경 KEB하나은행 둔산지점 과장

자산관리의 명가(名家), KEB하나은행은 전 직원의 PB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복파트너’를 도입했다.

행복파트너는 3,000만원 이상의 소액 자산가들이 미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제도이다. KEB하나은행 대전둔산지점의 행복파트너, 양진경 과장을 만났다.

KEB하나은행의 고객상담 서비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둔산지점의 행복파트너, 양진경 과장. 미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 지식은 물론 고객을 향한 진정성, 신뢰 가득한 인상, 호소력있는 말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행복파트너의 자격요건은 충분했다.

“그동안 창구 책임자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특히 저와 한두 번 거래 있으셨던 고객들 중에는 예·적금 등 상담을 위해 다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양 과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수록 고객과의 신뢰는 두텁게 쌓여져갔다. 그리고 보면 ‘행복파트너’는 고객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양 과장에게 참 잘 어울리는 역할이다. 고객의 신뢰를 쌓고, 기회를 얻기까지 양 과장만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석어였다.

“저는 은행원이 아니라 금융인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이제 은행은 예·적금만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적어도 미래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입사 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 왔어요.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보고 연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연수, 금융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으며 전문 자격을 갖추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외환전문역,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등 자격증도 많이 났고, 현재도 은퇴설계자산전문가, CFP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호기심과 치열한 공부, 고객 친화력, 신뢰가 느껴지는 말과 행동, 부지런함을 행복파트너의 자격요건으로 꼽는 양 과장의 끊임없는 질주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반 고객들도 품격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신뢰, 경제적 이득, 심리적 안정감까지 서비스하는 진정한 행복파트너로의 포부를 밝혔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행복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회초년생이었던 고객이 기억에 납니다. 적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열심히 들으시고는 가입은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몇 일 뒤 어머니와 함께 내점을 했어요. 함께 온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설명을 잘했기에 자기 아들이 꼭 과장님에게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한다” 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회초년생인 아드님의 적금을 설계해 드렸고, 잠시 후 어머니께서도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상담을 받으신 후 연금 상품까지 가입하시고 가셨습니다.

행복메신저
팁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법

- 1.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 연금소득이 필수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본인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젊을 때부터 연금을 가입해 준비해야 한다.
- 2. 생활의 간소화를 실천하라.** • 노후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 패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유지비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자산관리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면 관리비나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적당한 평수로 이사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을 병원비로 모두 지출할 수는 없다. 건강관리가 말로 진정한 노후의 중요한 자산관리 방법이다.

지출액 조정, 주택연금 활용으로 안정적 노후 생활

회사원인 H씨는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H씨는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라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 별도의 연금이 없어

은퇴 후에 발생하는 소득이 많지 않다는 점과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으로 인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후 준비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산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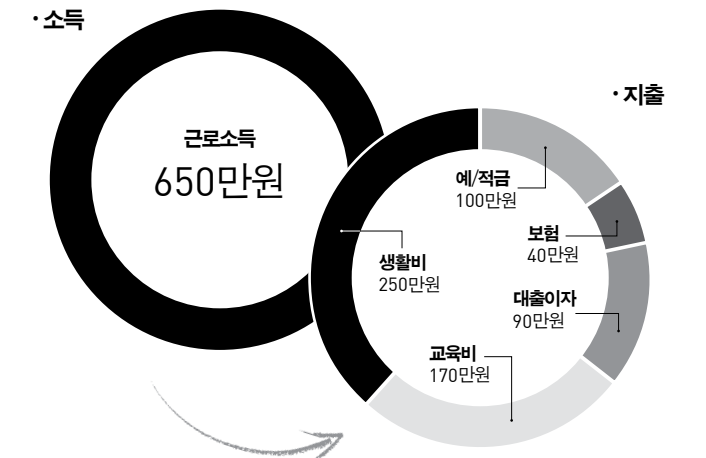
소득은 높은 편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인해 고민

회사원인 H씨(만 44세)는 미술 강사인 부인과 슬하에 중학교 2학년생, 초등학교 5학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H씨는 2015년 초 5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 중 3억5,000만원은 연 3.09%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본인의 근로소득 500만원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150만원을 합쳐 총 650만원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250만원, 교육비 170만원, 대출이자 90만원, 보험 40만원, 예/적금 100만원이 있다. 대출이자의 경우 아직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H씨는 부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것이 걱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원금 상환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지출 규모가 확대되어 금융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향후에 자녀들의 교육비(1인당 4,000만원 예상)와 결혼비용(1인당 1억원 예상) 등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5억 9,000만 원
	예/적금	2,000만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 원
· 순자산		2억 6,000만 원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250만원을 희망

H씨는 은퇴시기를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를 위해 H씨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11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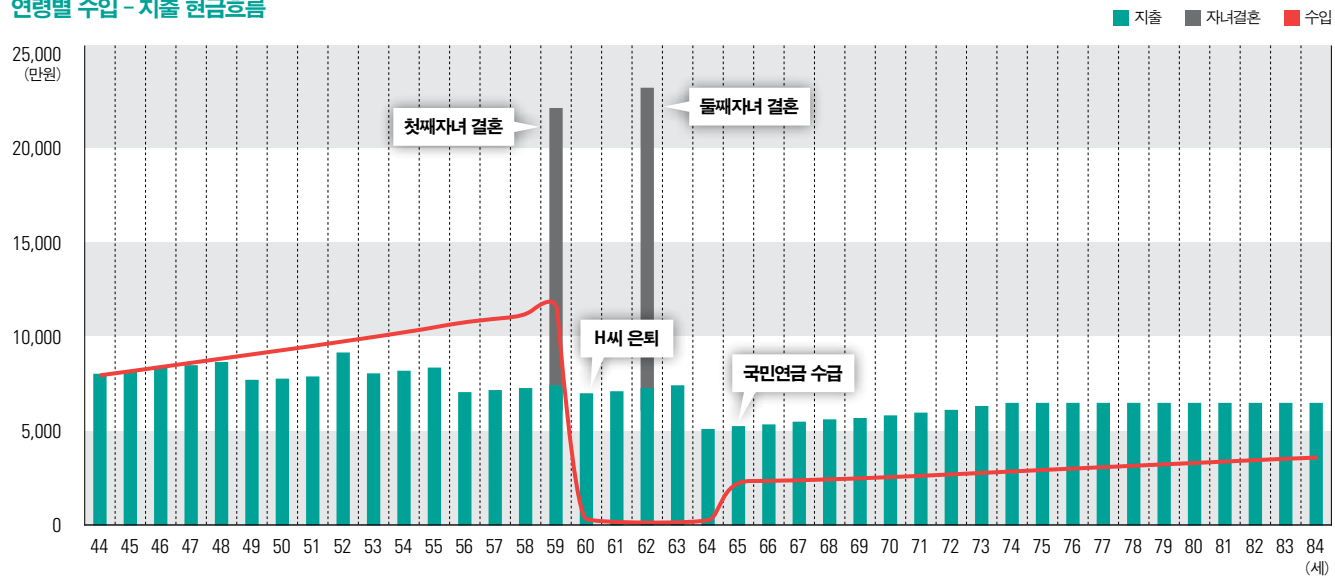
H씨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¹⁾을 살펴보면, 은퇴 전 첫째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연간 2,040만원으로 많은 편이라 향후에 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도 큰 무

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연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아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65세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으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노후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59세와 62세에 발생하는 두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금융자산뿐 아니라 기존의 지출 규모 축소 및 부동산 자산까지 일부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현재부터 은퇴 전인 59세까지 약 1억 200만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반면, 60세부터 85세까지 약 4억5,200만원이 필요하여 총 3억5,000만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 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현재 생활비 및 노후 생활비 조정, 주택연금 활용 등이 요구

H씨가 현재 수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후 준비를 위해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13.55%의 수익률이 요구된다. 다만, 13.55%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추구형(7%)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운용으로는 위험부담이 크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높은 요구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출 규모 조정이다. H씨의 경우 올해부터 발생할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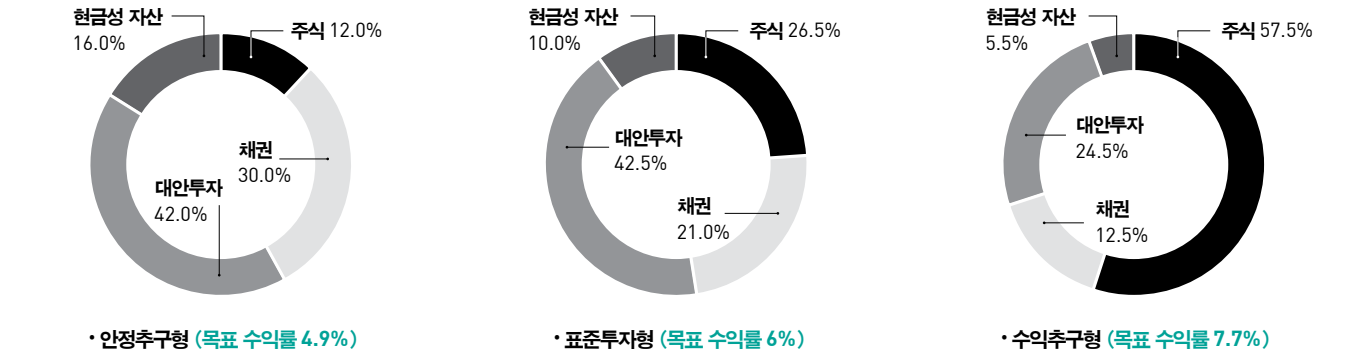
따라서 다소 어렵더라도 현재 생활비를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며, 노후 생활비 또한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비 수준을 낮출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여유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또한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택연금의 활용이다. H씨는 주거를 위해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부동산의 경우 유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유사시 노후 자금으로 적기에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H씨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 수급처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택연

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므로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64세까지의 소득 절벽 구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H씨의 경우 향후 2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60세가 되더라도 약 9,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를 활용해 60세에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가정한다. H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60세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인출한도를 약 9,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H씨는 60세부터 매월 103만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현재 생활비와 노후 생활비를 일부 감축하고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경우 여유 자금을 5.24%의 수익률로 운용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5.24%의 수익률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안정추구형 수익률과 수익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6%)의 중간 정도에 있는 수익률이다. 따라서 H씨가 수익률 달성을 위해 크게 위험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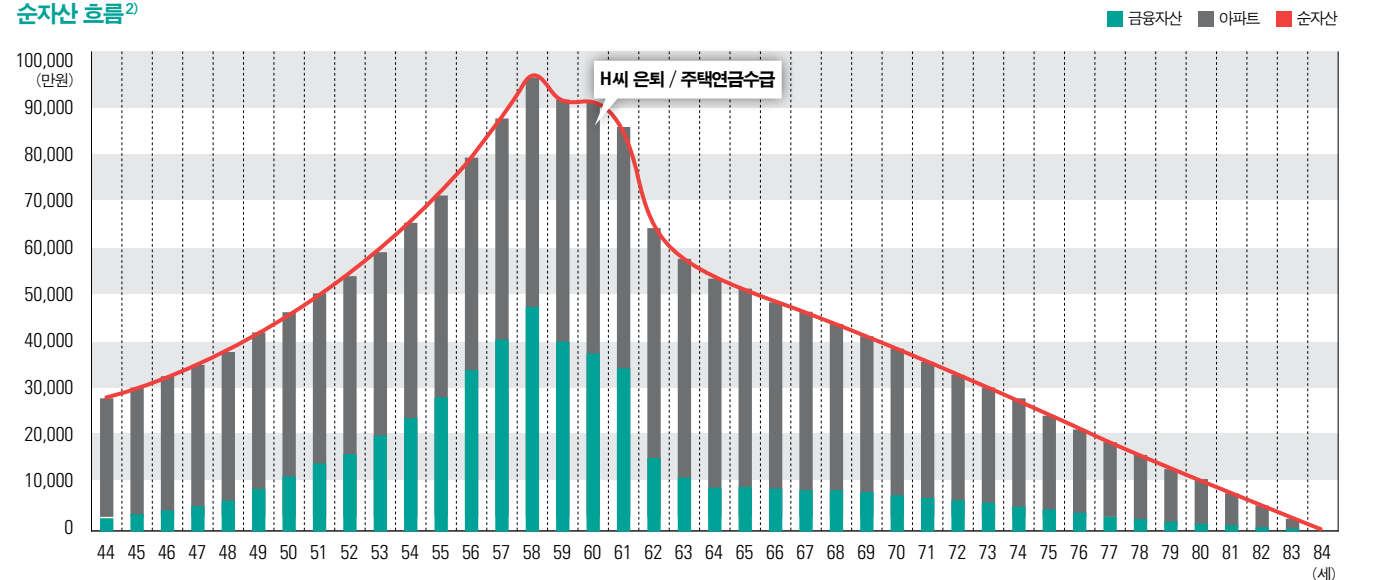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선제적인 확보가 필요

H씨는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라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 별도의 연금이 없어 은퇴 후에 발생하는 소득이 많지 않다는 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으로 인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 생활비 및 노후 생활비를 일부 줄여 금융자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도 H씨의 사례와 같이 금융자산 확보 및 연금 준비에 다소 소홀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때의 현금 흐름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현금 흐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금융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순자산 흐름²⁾



2) 위 순자산 흐름도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며, 기존 생활비와 노후 생활비를 2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을 가정한 것

기여분과 효도계약서

효도(孝道)를 권하는 사회



최근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효도한 자식들에게 소위 ‘효도상속분’을 주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인륜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효(孝)를 이제 국가가 권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여분’과 부담부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효도상속분’이라
불리는
기여분

기여분이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소위 효도상속분’이라고도 한다.

기여분은 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다. 사실상 동거하던 사람이나 상속포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 고객 상담을 하다보면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와 이에 반발하는 자녀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모도 자녀의 효도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을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 및 ‘부담부 증여’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자녀 측에 유리한 제도인 ‘기여분’을 살펴보자. 동아일보 2015년 12월 10일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해 인용한다.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효도계약서

동아일보 2015년 12월 10일 기사

2011년 경 췌장암 선고를 받은 A씨가 투병생활을 시작한 뒤 그의 곁을 지킨 건 자녀가 아닌 조카였다. A씨는 점점 친자식들과 교류가 뜸해지는 대신 조카와 각별한 관계로 지냈다. 병세가 악화되자, 2012년 4월 경 A씨는 조카를 양자로 삼았고, 6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죽기 석 달 전에는 “내 장례를 조카가 집전해 주고,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카에게 상속해 준다”는 유언장도 남겼다. 장례를 치른 후, 2013년 초 조카 B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내가 A씨를 홀로 부양하고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특별히 모셨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해 달라”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홀로 귀국한 A씨를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여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데, 위 사례에서는 조카가 사망 6개월 전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조카는 상속인 자격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이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소위 ‘효도상속분’이라고도 한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녀는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을 통상의 부양 정도 이상으로 극진히 부양했다는 사실 및 그 부양기간이 장기간인 사실을 입증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효도계약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되 효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부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인 ‘부담부 증여’를 살펴보자. 몇 년 전 퇴직한 A씨는 아들의 결혼을 대비하여 장남에게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려고 한다. 그 돈은 A씨가 받은 퇴직금 및 그동안 모아온 재산의 대부분이라 망설여지긴 하지만 재건축의 호재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설명에 솔깃한 심정이다. 다만 A씨는 그의 전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줄 경우,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에게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럴 경우에는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한 형태인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효도계약서의 핵심은 증여를 하되 효도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다. A씨가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① 효도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② 효도의무 불이행 시 아들은 A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 ③ 그 의무의 내용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을 것 등이다. A씨가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아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증여한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그동안 논의되어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입법이 완료되면서 국내에도 2016년 1월부터 도입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미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각 나라의 상황, 국민들의 자산형성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된 후 활성화되어 있다. 이번 도입된 제도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논의된 안보다 가입대상, 세제지원 폭 등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은퇴설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자를 포함하여 자산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투자라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금은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된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납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을 통산한 손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주어진다.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손익통산 소득의 250만원까지 세제혜택 규모가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후 5년간 유지되어야 하나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청년의 경우는 3년간 유지하면 된다. 그렇지만 퇴직,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자산형성을 하고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번에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저축, IRP 등 다양한 상품들이 각각 의무유지기간, 세제혜택의 범위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입에 앞서 자신의 은퇴설계, 자산증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혜택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단,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가입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무가입기간	5년(단,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와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은 3년)
납입한도	연 2천만원
편입상품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 팝업이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월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step 1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step 2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시간도둑 잡는 습관 베스트 5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떤 이는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하고

어떤 이는 하루가 지루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24시간을 12시간처럼 쓰기도 한다.

새해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시간 관리의 시작은
할 일 관리부터
습관 하나,
하루의 계획표 작성하기

나는 스마트폰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습관 둘,
스마트폰 내려놓기

물건 찾는 시간도
티끌 모아 태산
습관 셋,
정리정돈 습관화하기

TV는 바보상자?
시간도둑 상자!
습관 넷,
TV 보는 시간 정하기

세상에 '만약'이란 없다
습관 다섯,
가정하는 습관 버리기

2016년 다이어리를 '야심차게' 구입했지만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다이어리 활용은 매일의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모두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신 뒤 식탁에 앉아 **오늘의 할 일을 다이어리에 꼭 정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맑은 정신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하루를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 실수가 적고 그만큼 시간도 촘촘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밤새 못 본 뉴스를 보다가 '뉘시'에 걸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예 뉴스를 보고 있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SNS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는 게임 앱에 열을 올린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4시간가량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적어도 지하철 안에는 스마트폰 대신 신문이나 책을 펴는 습관부터 시작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작게는 서랍이나 부엌 찬장 같은 곳은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정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기억하기 힘들다. 물건을 찾는 시간도 어영부영 모으다보면 만만치 않은 시간 도둑이 된다.

정리정돈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비결이다. 정리정돈의 시작은 버림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림으로써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물건을 찾는 데 헤매거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더불어 주머니나 가방을 정리하는 습관도 들이자.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리모컨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은퇴 이후 TV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이 된다. 그러나 뉘 놓고 보다보면 어느새 하루하가 훌쩍 지나가버린다. 게다가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도 커진다고 하니, TV 보는 시간을 운동이나 기타 다른 활동을 하는데 쓰면 더욱 생산적일 것이다. **TV를 없애기가 두렵다면 TV 시청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하고 지레 걱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가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상황과 사람에 대한 헛된 가정과 판단을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하곤 한다. **가정도 걱정도 습관이자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도둑이다.** 올해는 시간을 먹고 사는 걱정쟁이가 되지 말자. 가정으로 인한 걱정이 들 때면 감정 일지를 써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 생각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가정하는 습관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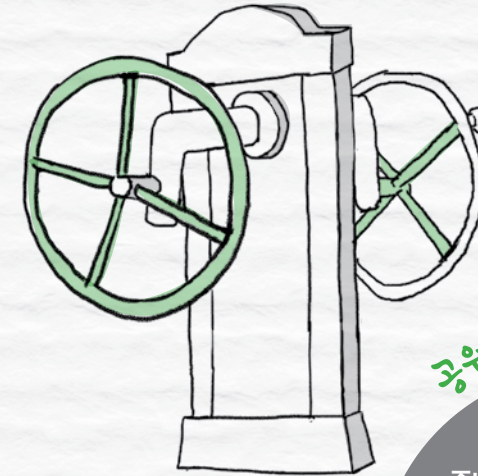
동네공원 운동기구 200% 활용법

집 근처 공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 제대로 활용하면 의외로 운동 효과가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산소 운동에서부터 몸의 중심이 되는 근육을 잡는

‘코어 운동’까지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우리 동네공원 운동기구 사용설명서.

동네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운동기구들.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한 병원의 조사 결과, 동네 공원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옆 사람 따라 추측해서 운동기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서를 꼼꼼히 보는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방법을 모른 채 사용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거의 없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안 좋다면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하체의 근육을 고루 발달시키는 ‘파도타기 운동’이 적합하다. 또 손목이나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상체에 많은 힘을 가하는 운동기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땐 핸들 돌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추천한다. 최근 트렌드인 ‘코어 운동’도 가능하다. 특히 근육을 키워야 하는 시니어들에게는 코어 운동은 중요하다. 코어란 골반과 엉덩이부터 척추까지 이어지는 근육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운동하기 전에 준비운동은 필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스트레칭 시간을 평소보다 길고,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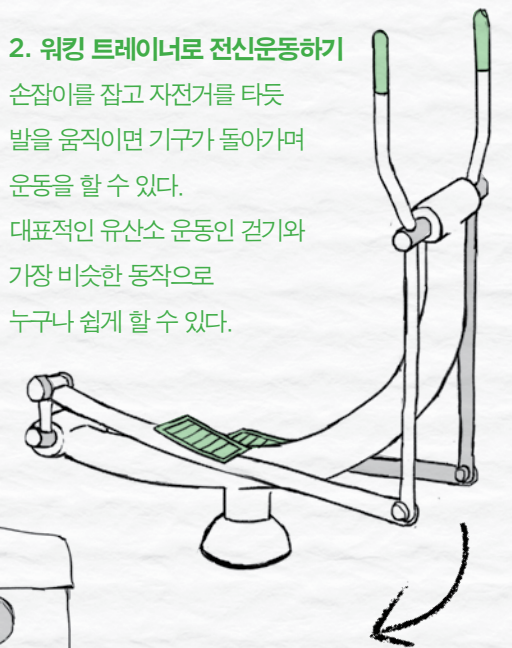


1. 활자머신으로 어깨운동하기

워밍업 단계에 하면 좋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기구를 돌리면 어깨와 등 근육이 활성화되는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다.

2. 워킹 트레이너로 전신운동하기

손잡이를 잡고 자전거를 타듯 발을 움직이면 기구가 돌아가며 운동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와 가장 비슷한 동작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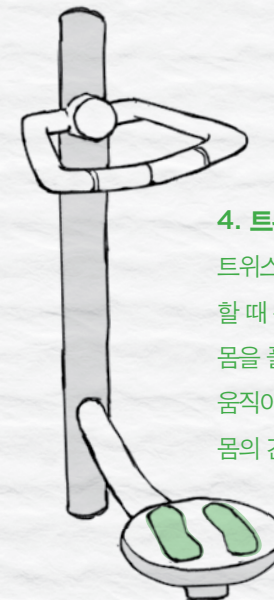


공원 운동기구 활용법

운동하기 전 준비 운동 후 아래 순서대로 운동 기구를 활용해 보자. 운동하기 전 사용법을 꼼꼼히 읽어보고 활용하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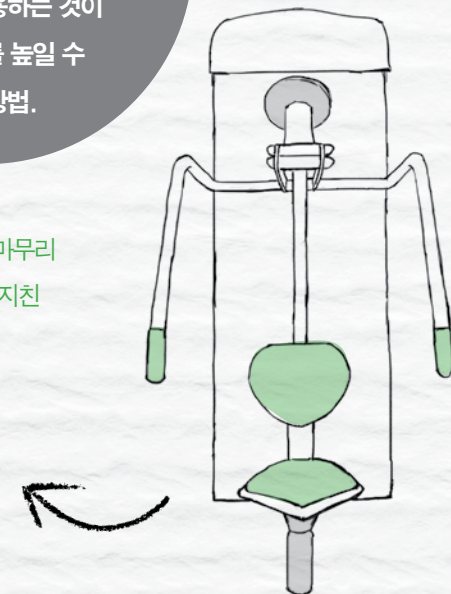
4. 트위스트로 마무리하기

트위스트는 가벼운 기본으로 운동을 마무리할 때 활용하면 좋다. 운동이 끝난 후 지친 몸을 풀어줄 때 올라가 몸을 비틀면서 움직이면 된다. 단, 무리하지 않도록 몸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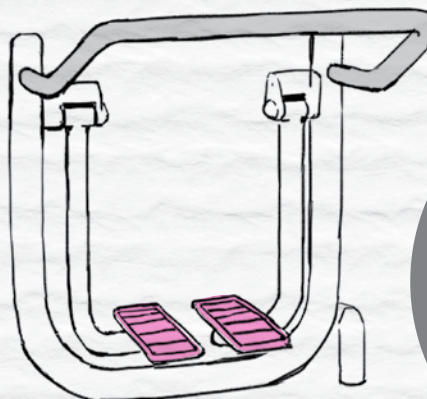
3. 체스트 업으로 상체운동하기

체스트 업 머신은 팔과 가슴을 비롯한 상체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머신 의자에 앉아 손잡이를 밀면 된다. 동작은 간단하지만 몸무게만큼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운동

하체 근육을 키워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추천하는 근력 운동 기구를 소개한다. 매일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적당히 활용하면 간편하게 근육을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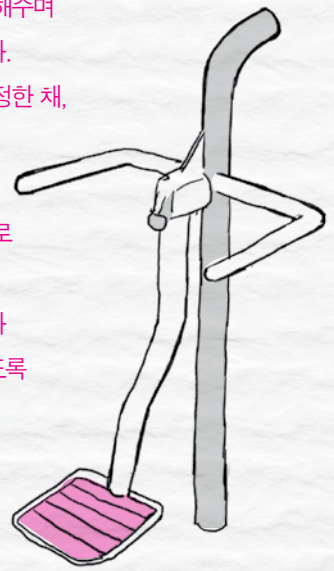


크로스컨트리

제자리 걷기의 운동 기구로 하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양다리를 걷는 자세로 앞뒤로 움직이며 운동한다. 두발을 동시에 움직이거나 다리보폭을 너무 넓게 하면 인대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롤링 웨이트

파도타기로 불리는 기구로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며 하체 근육을 단련시킨다. 무릎을 펴고 상체는 고정된 채, 발판을 좌우로 흔든다. 이때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주면 효과가 좋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몸통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명 작가들의 퀄리티 좋은 작품을 손쉽게 쇼핑할 수 있는 아트숍이 인기다. 쇼핑하듯 즐기며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미술 작품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무료한 일상을 채우는 감각적인 아트숍 들여다보기.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부터 독특한 컨셉의 그림까지 다양한 작품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트숍.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술 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술관에서야 만날 수 있는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도 들으며 작품을 추천받기도 한다. 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을 부담 없는 금액으로 렌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미술 강좌로 한층 친근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프린트베이커리 www.printbakery.net | 빵을 사러 빵집을 찾듯,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옥션이 운영하는 아트 숍 프린트베이커리다. 전 세계 유명작가들이 참여해 제작한 한정판 에디션 작품을 기획, 제작, 유통하고 있다. 플래그십 삼청점은 순수 예술작가들의 작품, 사진, 조각, 온라인 웹툰 작가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빵집 드나들듯 부담 없이 나만의 컬렉션을 즐겨보자.



씨포먼트갤러리 www.suppoment.com |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씨포먼트갤러리. 한국화에서 유화, 서예까지 장르는 다양하다. 미술 작품 검색 포털 사이트 '씨포먼트닷컴'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작품 선택의 폭이 넓다. 국내외 아트 페어 진행과 기획 전시도 이뤄지고 있다.



루마스갤러리 kr.lumas.com | 소장 가치가 높은 사진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루마스갤러리. 2004년 독일에서 시작해 전 세계 18개국 43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그림숍이다. 200여명이 넘는 작가들과 작업을 통해 1,800여점 이상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모든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위아트 www.wart.or.kr | 대형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만 감상할 수 있었던 해외 명화와 회화 작품의 아트 프린트를 선보인다. 전문 큐레이터가 작품 큐레이팅에서부터 액자와 디스플레이 등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다. '갤러리 카페'라는 콘셉트로 바리스타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마시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픈갤러리 www.opengallery.co.kr | 그림을 렌탈한다? 국내에는 대중화되지 않은 그림 렌탈 서비스로 미술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가의 작품도 부담없는 요금으로 렌탈할 수 있어, 쉽게 접하지 못했던 미술품을 손쉽게 우리 집으로 들여올 수 있다. 오픈갤러리에 등록된 작가는 250여명, 작품은 4,000여점이 있다. 인터넷으로 작품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까레다띠스 www.carredartistes.co.kr |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까레다띠스는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 270여 곳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600여 명의 작가와 협업하고 있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아트숍은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 아닌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 작품을 전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안아트 www.iaanart.com | 2005년 문을 연 이안아트는 유화, 동양화, 서예작품 7,000여 점과 세계의 명화 3,000여 점을 보유한 아트숍이다. 인터넷은 물론 작은 규모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구매가 가능하다.

새해 달라지는 연금 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확대되고,
연금 활용의
유연성이 증대

새해에도 경제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금 수익률은 날로 하락하고 있고,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 연금 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경제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적 요인에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의 표면화 가능성 등 내부적으로도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20~30대까지 포함한 희망퇴직이 급증하고, 임금피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금 수익률은 날로 하락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 바뀌는 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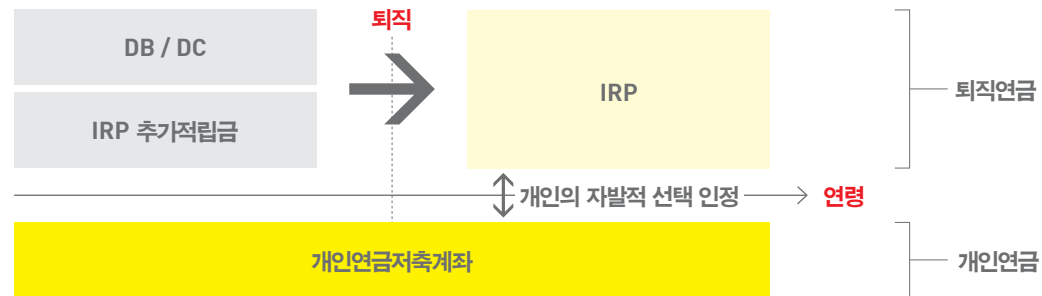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연화되고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①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①”에 따른 제도시행 혹은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수급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에는 임차금 항목이 추가되었다.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최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임차금 부담이 커진 근로자가 많다. 임차금을 위해 퇴직연금을 해약한 근로자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해 임차금을 해결할 수 있다. 임차금 외 담보대출의 사유는 대학등록금, 장례비 및 혼례비까지 확대되었다. 퇴직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납입한도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달라 가입자의 혼선이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고 추가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IRP가입자들은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 개인연금저축 간 이체 시 과세이연 허용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저축 간 자금 이동 시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2월 24일 확정된 '2015 세법 개정 시행령'에 담긴 내용이다. 그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싶어도 일시금 인출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6.6~41.8%)를 내야 했고, 반대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이동할 때에도 계좌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했다. 이제는 55세 이후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IRP와 개인연금 간 이체 시,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과세이연 등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본 제도는 입법 예고와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간 과세이연



※계좌이체 가능 시점 :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료 : 금융위원회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권 크게 강화

최근 고용과 가정생활이 유연화 되면서 이혼 여성이나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는 사회생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여성의 노후생활 보장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최근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분할연금 선(先)청구’가 허용되었다.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을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한 법적 이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보유자인 경우에 한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60세 이후부터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일찍 이혼한 뒤 분할연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급권 소멸이라는 안타까운 사례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할연금 청구 가능 기간을 이혼 3년 내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한정된 연금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확대된다. 연금분할 청구권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취급한 연금수급권을 이혼 과정에서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제도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이미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계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10명 중

연금 수단의 다양화, 수익률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

4명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납부가 불가능했다. 제도가 변경되면 경력단절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기존 20%에서 늘어난 30%의 유족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12월 20일 발표한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도 연금 관련 몇 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시행 시기는 다소 미정이나, 2016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비교적 큰 사항을 정리해본다.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은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1분기 중 신규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부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수익률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기존 연금저축신탁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운용 자산 선택이 어려운 개인들을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대표상품 제도가 도입되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Default option)하는 제도로도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고령층 노후준비에 중요한 연금으로 인식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 정부는 가입 조건을 완화해 가입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미 작년 8월에는 재개발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이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9억 원으로 정해진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정 가격은 9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편 개인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금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면 개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연금계좌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 시기는 다소 예측하기 어렵다.

제도변화에 따라 자신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길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결정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간 칸막이가 낮아지고, 주택연금의 가입조건도 완화되면서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연금에서도 포트폴리오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연금이 은퇴 후 안정성 높은 소득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은퇴 준비기에서는 원리금보장 위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위험자산을 적절히 편입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 새로운 제도 변화에 맞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자신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국내 부자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국내 부자들은 노년의 삶을 휴식하며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 한다.

또 국내 부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로 월 평균 453만원, 적정 생활비로는 월 7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노후 자금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금융 자산을 안전용, 투자용, 노후자금용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퇴준비이다.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노년무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자들도 포함된다. 저금리 기조 및 경기부진 지속으로 부자들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져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관심이 매우 높다. 국내 부자들은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안정적 금융상품과 절세 효과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연금 및 사회보험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자금원으로서 부동산 임대수익 활용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자들의 노후준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 가정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비교해 보자.

국내 부자들이 생각하는 은퇴 : 진정한 휴식(임)

국내 부자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에 대한 이미지는 휴식과 평온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당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¹⁾ 현재 은퇴한 부자의 81.8%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해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스포츠 활동 참여, 여행, 문화예술 관람 등으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은퇴를 한 부자의 63.2%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로 일에 의한 스트레스가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응답한 부자들(18.8%)의 경우 새로운 직업 선택 시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으로 '여가시간(41.1%)'을 가장 많이 선택해 휴식을 중심으로 한 은퇴생활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은퇴하지 않은 부자들의 경우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0.9%로 높게 나타나 미래에 은퇴할 부자들은 새로운 직업을 통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 업무적인 사회생활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 선택 기준으로는 여가시간, 적성, 재능 기부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 및 사회보험'만 월 262만원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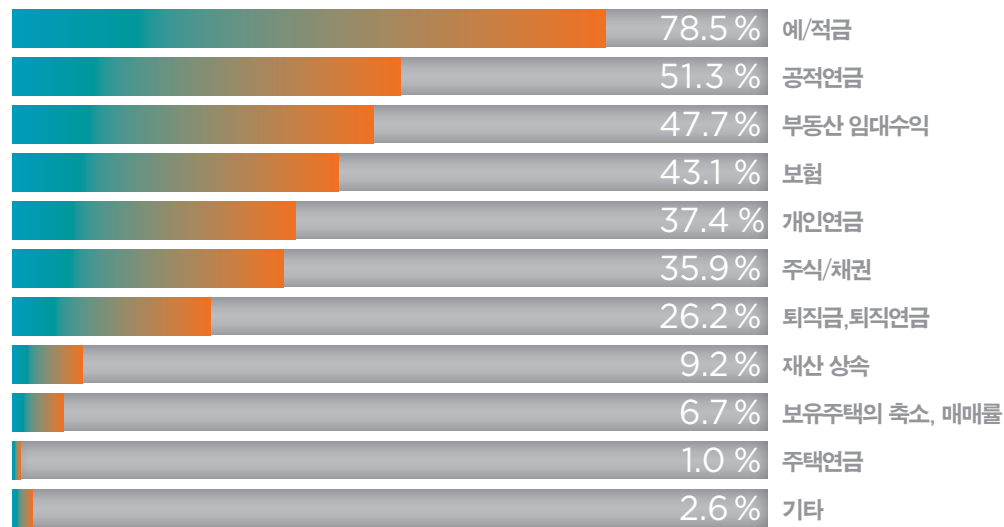
국내 부자가 노후를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평균 453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75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자들 역시 일반가계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진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은퇴 후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후자금 준비에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경기부진 지속으로 부자들도 소비 지출(월 평균 가계 지출액 972만원, 전년 월 평균 가계 지출

1)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이상 자산가 1,099명을 대상으로 2015년 조사

액 1,021만원)을 줄이고 있는 반면, 연금 및 사회보험 월 평균 납입금액은 262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연금과 사회보험과 같이 다소 수익률이 낮아도 안정적인 수익과 절세효과를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내 부자들의 연금 및 사회보험 납입규모는 30대 이하 월 166만원, 40대 268만원, 50대 311만원, 60대 235만원, 70대 169만원으로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의 납입규모가 가장 컸으며, 30대 이하 부자들의 납입규모도 작지 않아 젊은 부자들도 은퇴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향후 이에 대한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로 나타나 부자들이 노후자금원 준비를 위한 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자금원(복수응답)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익형 부동산’도 노후자금원으로 중요

현재 국내 부자 은퇴자의 노후생활 자금원 조사결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활용 비중이 47.7%(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나 부자들은 수익형 부동산도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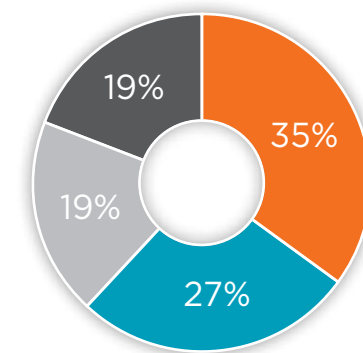
특히, 국내 부자들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향후 현 상태로 정체하거나 또는 침체할 것이라고 스스로 회의적인 전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비중은 47%로 2008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15년 전년 대비 3%p나 상승해 안정적인 투자처는 그래도 부동산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부자들의 수익형 부동산(상가 제외) 보유 비중이 46%인 가운데, 부자들은 앞으로 1년간 포트폴리오 운용과 관련, ‘투자용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상승, 향후 1년 이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도 수익형 부동산 마련이 대출의 목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8%로 가장 많아 향후 국내 부자들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늘리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계약 형태에서 고정적인 월수입을 가져오는 반 전세 및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3.2%나 되었으며, 향후 월세 및 반 전세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71.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고정적인 수입을 지향하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전용, 투자용, 노후자금용으로 적절히 배분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예·적금 35%, 투자상품(직접·간접) 46%, 연금 및 사회보험 19%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한 자산 관리용, 수익률이 높은 투자용, 노후자금 등 각 목적에 맞게 금융자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배분되어 있었다. 최근 부자들은 안전자산 비중을 줄이고 투자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부자의 경우 예·적금 51%, 투자상품 28%, 연금 및 사회보험 20%로 구성되어 안전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연금 및 사회보험 비중도 다른 연령대 부자들의 비중과 차이가 거의 없어 젊은 부자들의 적극적인 은퇴준비 경향도 엿볼 수 있다.(연령대 별 연금 및 사회보험 자산 비중: 30대 20%, 40대 19%, 50대 18%, 60대 19%, 70대 이상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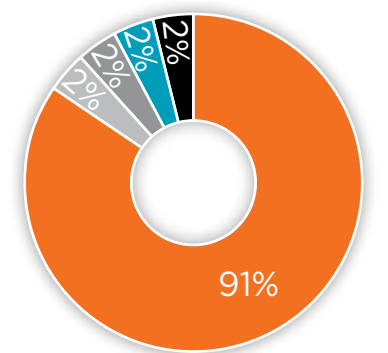
부자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예적금 | 펀드/신탁 | 주식 | 연금 및 사회보험등 기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가계 전체 금융자산 투자성향



예적금 | 펀드/신탁 | 주식 | 개인연금 | 기타

자료 : 한국은행

일반가계들도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필요

국내 부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30대부터 일찍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연금 및 사회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안전용, 투자용, 노후자금용으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전하게 노후자금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일반가계의 경우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 전체 가구의 15.1%는 가구주가 은퇴했고, 이들의 62.1%는 생활비 충당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부자들과 달리 예·적금(91%), 투자상품(4%), 개인연금(2%) 순으로 투자성향을 보여 지나치게 안전자산 중심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노후준비를 위해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가계의 경우도 생활비가 부자들처럼 여유롭지는 않지만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젊어서부터 은퇴설계를 통해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운용도 예·적금 중심의 원리금보장 운용보다는 자신의 은퇴설계를 고려해 적절하게 투자상품과 개인연금 상품 등으로 자산을 재배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가계들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노후 은퇴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있는 한국경제



인구 고령화 진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화로 상품소비의 활력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변화를 진단해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2015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는 5,06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을 경우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14%를 상회할 경우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추산에 의하면 2018년 경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고령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온 일본을 보더라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8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 기간도 우리나라는 8년 정도에 불과해 일본의 12년보다 훨씬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업의 생산 및 투자활동, 소비자들의 소비 및 자산배분, 정부의 재정 및 복지정책 등 경제 주체의 모든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과거 겪어보지 못했던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동인구 비율의 감소라는 점에서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고령화 소요시간 국제비교

(단위 : 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
도달연도	7%(고령화사회)	2000	1970	1864	1932	1929	1887	1942
	14%(고령사회)	2018	1994	1979	1972	1976	1972	2013
	20%(초고령사회)	2026	2006	2020	2012	2021	2012	2028
소요기간	7% ▶ 14%	18	24	115	40	47	85	71
	14% ▶ 20%	8	12	41	40	45	40	15
	7% ▶ 20%	26	36	156	80	92	125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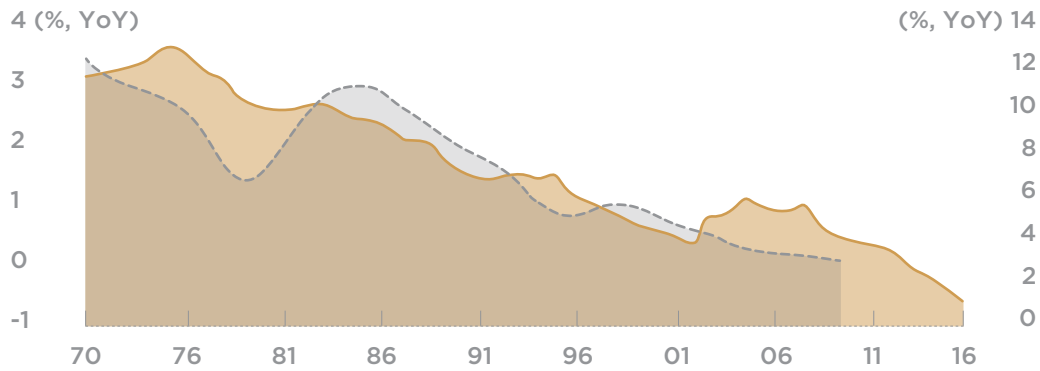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성장률 둔화 가속화될 우려

인구 고령화는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고령인구의 노동능력 약화로 노동력 저하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72.9%(3,704만 명)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63.1%(3,289만 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라는 부가가치의 합은 결국 노동 투입량과 노동생산성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 경우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90년대 이후 내수부진 및 장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 둔화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좌) — 성장률 장기추세선(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고령화로 상품소비의 활력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될 전망

또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될 경우 상품 소비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주택,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층은 1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젊은 세대이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는 이들 세대의 인구비중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5세에서 39세의 인구비중은 91년 47.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에는 그 비중이 33.2%,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7년에는 28.1%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었다. 고령인구가 이들을 대체해 소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구매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령인구의 소득 원천이 연금과 금융자산 등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할 경우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소비의 활력둔화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 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고령인구는 상품 위주 소비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소비행태를 보일 전망

한편 새롭게 소비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고령인구는 기존의 상품 위주 소비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소비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레저·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에 선호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이다. 건강하고 젊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이들 고령인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획득과 은퇴 이후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종합자산관리와 같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일과 자녀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노년층은 여유로워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감동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레저·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인한 저금리의 고착화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예금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변화시킬 가능성

인구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성장 잠재력 둔화로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노인 관련 보건·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관련 재정지출 비중의 증가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부족해지고, 은퇴자 증가로 연금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향후 수십 년 내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연금 개혁이 실시되어야 하며, 개혁을 미뤘던 국가들은 이전 세대와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연금 문제는 정부 재정에 의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물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및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는 금리를 떨어뜨려 저금리 환경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저금리 환경의 고착화는 소비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저축 및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 및 채권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즉 저금리의 고착화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예금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모딜리아니(M. Modigliani)의 '생애소득가설(Life Cycl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의 연령별 자산수준은 40~50대의 장년층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따라서 노년층은 은퇴 이후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신의 보유자산을 대거 처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빠질 경우 자산시장이 일시에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 못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직장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수명과 낮은 물가수준, 그리고 연금 지급의 부담으로 인해 연봉 수준이 높지만 정년이 불확실한 직종보다 연봉 수준은 낮지만 정년이 보장된 직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 즉 현재의 연봉 수준보다 근무연수가 더욱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정규직과 같이 정년이 보장된 직종에 대한 최근의 높은 선호는 이와 같은 변화를 설명해주는 예시가 될 것이다.

강력한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추진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그러나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초고령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2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앞으로 10년 남짓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소비의 활력이 떨어지며, 정부 재정이 압박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력한 구조개혁과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주택시장의 전망과 관전 포인트



2016년부터는 주택시장이 성장 둔화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은 취약한 실수요 기반이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가계부채 대책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주택시장을 전망해본다.

주택시장의 정점,

2002년, 2006년, 2011년, 2015년

2000년대 이후 주택 가격은 4~5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했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2년 16.4% 상승했던 전국 주택 가격은, 2006년에도 수도권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11.6%나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방광역시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1년 다시 6.9%의 상승세를 보였다. 2012년 이후에는 수도권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2015년 주택 거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활황세를 보이며 가격상승 폭도 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GDP, 금리,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2016년 주택시장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

2016년부터는 주택시장이 성장 둔화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3년 이후 2%대에 머물고 있다. 2015년 지방광역시의 주택거래는 2011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가격 상승폭은 대구를 제외하면 2011년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 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역이 변수인데, 경기도는 2015년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아파트 재고 대비 8% 이상 분양이 이뤄진 지역은 충청권과 경상북도를 제외하면 경기도가 유일하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시가수도권의 가격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만으로는 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취약한 실수요 기반이 최대 리스크

2014년 이후 전국 매매가격이 6.4%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은 9.3%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3.7%에 달해 매매가격 상승률(7.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전세수요자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었다. 2014년 대비 20만호나 늘어난 2015년의 주택거래 중 상당수가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간 이틀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 중고소득 가구의 30%는 여전히 전세 가구지만, 지방광역시와 기타 비수도권에서는 15%, 10% 가량만이 전세이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실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2016년에는 지역별로 상황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주택수요의 위축 가능성에 주의

수도권에서는 2016년 새로 시행되는 가계부채 대책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15년 주택거래가 급증한 데에는 2014년 하반기 주택금융규제가 완화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15년 1~10월 은행, 비은행, 공공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3조원 늘어나 2014년의 연간 증가분 44.3조원을 크게 넘어섰다. 가계부채 부담으로 2015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4년을 넘어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출심사와 분할상환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지방에 3개월 앞서 2016년 2월부터 수도권에 우선 적용되면서 소득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연 초 이후 지역별 거래량 및 가격추이를 주시해 움직임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KEB은행 중 자산규모 1억(2015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등
12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혜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한도인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형 이자를 합하여 한도인 '최고 안전예치금액' 이하(예금 300만 원 이하) 금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권별센터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com)를 참조하시거나 중앙당으로 문의바랍니다. 본행중앙당 연락처 02-3090-1111(내선 700)

일본의 시니어는 ‘창업 중’



최근 일본에서는 ‘숙련 창업(노년 창업)’이 늘고 있다. 일본은 50대 중년을 포함한 고령자 창업을 ‘숙련 기업(起業)’으로 일컫는다. 일본 창업자 중 60세 이상이 32%를 차지해 연령대별 창업자 순위에서 젊은 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밝혔다. 전체 창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0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

최근 노년 창업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니혼게이지 신문은 “노년 창업이 늘어난 데는 건강한 노년층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8%가 ‘건강하다’고 답했다. 20·30대의 71%보다도 높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탄탄한 기초체력이 창업동기, 도전의욕으로까지 이어져 창업에 뛰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65세 전후 단카이 세대가 회사 생활 중간에 버블을 경험하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당시 회사 부도와 실직자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의식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고용·정년연장 대신에 회사 밖에서 자신만의 성공지도를 그리려는 창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숙련 창업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본인 경험을
살린 소규모 컨설턴트나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또 가족의 도움을 전제로
특화해서 사업화한 음식점과
농업 분야도 전망이 좋다.
최근 저수익 창업도 트렌드로
떠올랐다.

”

숙련창업 지원 아이템도 덩달아 ‘활황’

일본 정책금융금고에 따르면 최근 55세 이상 창업 대출 증가가 눈에 띈다. 2014년 대출 건수는 약 3,000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숙련 창업은 창업지원 아이템의 사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사업 계획을 비롯한 자금조달, 시장 개척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숙련 창업 세미나는 인기 절정이다. 선배 창업자의 생생한 조언을 청취할 수 있고,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등을 내세워 숙련창업을 준비하는 노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소속 창업지원기구의 지원도 증가세다. 각 지자체마다 창업지원기구에 숙련 창업 코스를 개설해 관리직 경험자에게 경영 마인드, 영업자 출신에게 재무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맞춤형 지원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역시절의 경험으로 고객, 직원, 거래처를 움직이는 비결을 체득한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숙련 창업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본인 경험을 살린 소규모 컨설턴트나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또 가족의 도움을 전제로 특화해서 사업화한 음식점과 농업 분야도 전망이 좋다. 최근 저수익 창업도 트렌드로 떠올랐다. 은퇴한 시니어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적당한 수익을 얻는 이른바 ‘느슨한 창업’은 창업 성공률이 높아 시니어들의 인기가 높다.

정부, 지자체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지원

사실 일본의 창업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후하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해 숙련 창업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의욕 있는 기업을 열심히 지원하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주 기업에 대한 판로·자금·라이선스·법률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 지위 인정, 적극적인 규제 해소 등을 나눠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특히 입주기업들의 문제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상담인력 연계를 통해 자금조달, 첨단기술 관련 라이선스 등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은 신용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때는 지자체가 신용보증을 해 원활한 자금 수혈을 돕는다.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다면 금리인하 혜택도 덩으로 준다.

나도 파워 블로거!

온라인 속의 공유 공간, 블로그.

나만의 경험, 나만의 콘텐츠가 날개를 달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바로 블로그가 아닐까.

그 매력의 공간에 도전하는 법.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고, 삶의 발자국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블로그에 도전해보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무작정 시작하고 나면 쉽게 지치기도 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블로그를 만들기 전 준비 단계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져보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블로그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재미와 뿌듯함에 삶의 에너지는 가득 채워진다.

게다가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나만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특별한 콘텐츠로 가치를

더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삶에 대한 태도까지 긍정으로 바꾼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선 블로그에 뭔가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리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써보자. 블로그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How to Blog

01

블로그 개설은 어디서 해야 할까?

네이버 블로그, 다음, 네이버, 티스토리 등이 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블로그는 운영이 다소 쉬운 편이다. 티스토리의 경우 어느 정도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하다.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공간을 찾으려면 된다.

02

어떻게 콘텐츠를 채워나갈까?

첫째, 항상 독자를 생각하며 읽히는 글을 써라. 둘째, 블로그 초창기에는 실용적인 내용부터 다뤄라. 셋째, 독자의 범위를 좁혀라. 넷째, 한 분야를 파고들여라. 다섯째,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글을 써라. 여섯째, 꾸준히 써라.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온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온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온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온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온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SK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지주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